

간협, 교육전담간호사 및 프리셉터 교육

신규간호사 업무적응 돕고 교육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 교육(기본과정)' 및 '프리셉터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및 KNECC(간호교육인증센터)에서 진행했으며, 간호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됐다.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기본과정)**=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학적 지식 및 역량을 향상시켜 임상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중증병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세 차례 교육을 실시했으며, 총 358명이 교육을 받았다. 1차 교육은 서울·강원, 인천·제주, 경기 권역센터가 8월 12일 용인 KNA연수원에서 실시했다. 2차 교육은 대전·충북·충남, 광주·전북, 전남 권역센터가 10월 1일 대전 BMK코스모스에서 개최했다. 3차 교육은 부산·울산, 대구·경북, 경남 권역센터가 10월 15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실시했다.

간호교육인증센터에서는 두 차례 교육을 실시했으며, 총 156명이 교육을 받았다. 1차 교육은 10월 2일, 2차 교육은 10월 11일 용인 KNA연수원에서 실시했다. 3차 교육이 12월 4일 열릴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간호교육자의 역할, 학습 촉진을 위한 교수법, 임상수행능력, 학습자 평가 등이 다뤄졌다. 간호교육자의 필요 역량, 임상현장에서의 비판적 성찰 활용, 교수법, 동기부여 전략과 활용, 근거기반 실무 및 사례, 다양한 평가방법 및 피드백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프리셉터 교육**= 신규간호사 교육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도록 해 프리셉터의 교육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신규간호사가 성공적으로 간호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 5차에 걸쳐 프리셉터 총 342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12월 6일 한 차례 더 교육이 열릴 예정이다.

1차 교육은 대전·충북·충남 권역센터가 9월 3일 대전시간호사회 회관에서, 2차 교육은 대구·경북 권역센터가 9월 5일 대구시간호사회 회관에서 실시했다. 3차 교육은 부산·울산, 경남 권역센터가 9월 9일 부산시간호사회 회관에서, 4차 교육은 광주·전북, 전남 권역센터가 10월 24일 조선대병원 의성관에서 개최했다. 5차 교육은 인천·제주 권역센터가 11월 5일 인천시간호사회 회관에서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프리셉터의 개념과 역할, 신규간호사



의 특성과 교육요구도 이해, 신규간호사를 위한 효율적인 교수법, 성격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기술, 프리셉터십을 위한 코칭 스킬 등이 다뤄졌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전담간호사 신규 채용 또는 기존 인력배치에 따라 추가 인력 채용비용으로 1인당 월 3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교육전담간호사' 및 '신규교육전담간호사(프리셉터)' 두 가지다.

국공립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 후 심의를 거쳐 총 61개 기관을 지원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교육전담간호사의 경우 300명당 미만은 1명, 300명 이상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최대 5명까지(단과병원원은 최대 2명)이다. 프리셉터는 100명당(또는 병동) 당 1명을 지원한다.

사업비를 지원받는 교육전담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전담간호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가이드라인**= 대한간호협회는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실시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가이드라인 구축'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것이다.

가이드라인 개발의 목적은 신규간호사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교육관리체계를 구축해 신규간호사의 조기 이직을 예방하고 간호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가이드라인은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신규간호사 교육 △교육담당자 양성 △교육프로그램 평가로 구성됐다.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무료 배포했으며,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홈페이지(edu.kna.or.kr) 공지사항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2.74% 인상 통합재가서비스 추진 등 서비스 개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되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0...내년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 인하기로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방문간호 2.48%, 노인요양시설 2.66%, 공동생활가정 2.71%, 주야간보호 2.67%, 단기보호 2.89%, 방문요양 2.87%, 방문목욕 2.66%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7만99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570원~1840원 증가한다.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 도역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으로 2.88%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만4800원~4만1900원 늘어난다. 재가급여는 월한도액 내에서 수급자가 급여 유형과 양을 선택해 사용한다.

0...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올해(8.51%)보다 1.74%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소득 대비로 환산한 보험료율은 올해 0.55%에서 2020년 0.68%가 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결정되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9069원에서 내년 1만1273원으로 2204원 늘어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매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이 불가피했다"면서 "장기요양보험은 최근 수급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0...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급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재가서비스를 확대·내실화한다.

이에 방문간호·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에 맞게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급여' 도입을 추진하며, 올해 8월부터 예비사업 중이라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에서는 간호사를 필수인력으로 두고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뤄 사례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상태, 욕구 변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입원, 출장 등으로 가족이 부재할 때 수급자를 단기간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이 있으나 기관 수가 부족해 이용이 어려웠다. 이에 접근성이 높은 주야간보호기관을 활용해 일정기간 어르신을 보호하는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논의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올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정규숙·이진숙 기자

'간호 리더를 위한 문항개발 및 평가전략 워크숍'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국가시험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 리더를 위한 문항개발 및 평가전략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본 교육에 관심 있는 간호대학 교수, 간호사, 전문간호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그램명	간호 리더를 위한 문항개발 및 평가전략 워크숍
일시	2019년 11월 28일(목)
장소	KNA연수원
인원	100명 (선착순 마감)
교육비	없음

* 본 교육은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KNA에듀센터(edu.kna.or.kr) 개인회원 로그인 → 오프라인 RN교육 → 오프라인 무료교육에서 프로그램명 검색 → 신청

결핵 적정성 첫 평가결과 공개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배치기관 평가결과 높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결핵 1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에서는 결핵 신환자 진료 수준을 파악해 효율적인 국가결핵관리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결핵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다.

1차 적정성 평가는 2018년 1~6월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확정 결핵 신환자의 결핵 신장특례(V000) 적용 진료비(외래 또는 입원)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 620개 기관의 1만29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1차 적정성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의 정확도' 지표에서는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95.8%,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95.5%,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93.0%로 나타났다. '초치료 처방준수' 지표에서는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이 96.8%로 지표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핵환자 관리수준' 지표에서는 결핵환자 방문 비율이 88.2%로 가장 낮아 결핵환자의 주기적 방문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처방 일수율은 95.9%로 높게 나타나 꾸준한 복약이 중요한 결핵환자의 복약관리가 잘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사업 참여기관은 97.6%가 종합병원이며, 평가결과 6개 지표 중 4개 지표(진단의 정확도 3개 지표 및 약제처방 일수율)에서 PPM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보다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환자의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준수율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결핵환자 방문 비율은 PPM기관이 대부분 대도시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다소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공공협력(PPM : Private Public Mixed) 결핵관리사업은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철저한 환자관리를 지원하는 등 민간의료기관과 정부가 협력해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2018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82개, 병원 3개 등 총 12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결핵 신규환자는 2011년 최고치 이후 7년 연속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결핵 신환자수는 2011년 3만9557명, 2017년 2만8161명, 2018년 2만6433명이다.

정규숙 기자 kschung@

2019년 간호사 면허신고 안내

면허신고센터 : ☎1644-1755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 lic.kna.or.kr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koreanurse.or.kr)에서 바로가기 클릭



래어달메디컬 기술지원 프로그램

구입하신 장비 상태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 드립니다!



- 시뮬레이션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미작동과 장비 운영 기술은 시뮬레이션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우수한 교육 내용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고객의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 검증된 기술지원서비스로 고객의 장비에 관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계획된 관리 체계로 지속적인 환자 치료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기술 지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5년** 시뮬레이터 보증 기간 연장
구매 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X** 소모품 교체 패키지
대부분의 주요 소모품(PM) 혹은 가장 빈번히 소모되는 제품 교체(PM Lite) 중 택 1 가능
- 24h** 최우선 전문 수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최우선 전문 수리(24시간 이내 방문)
- 무상** 장비 평가 시스템
무상 정기 점검 서비스 시스템 운영(년 2회)
- 무상** 대여 서비스
학기 중 장비 입고 수리 시 무상 대여 서비스
- 예산** 편성 계획표
지속적인 장비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계획표 제출